

THE MONTHLY BUSINESS JOURNAL Vol.119

비즈니스저널

2011 June 6

KPC 한국생산성본부
Korea Productivity Center

COVER STORY _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김태석 이사장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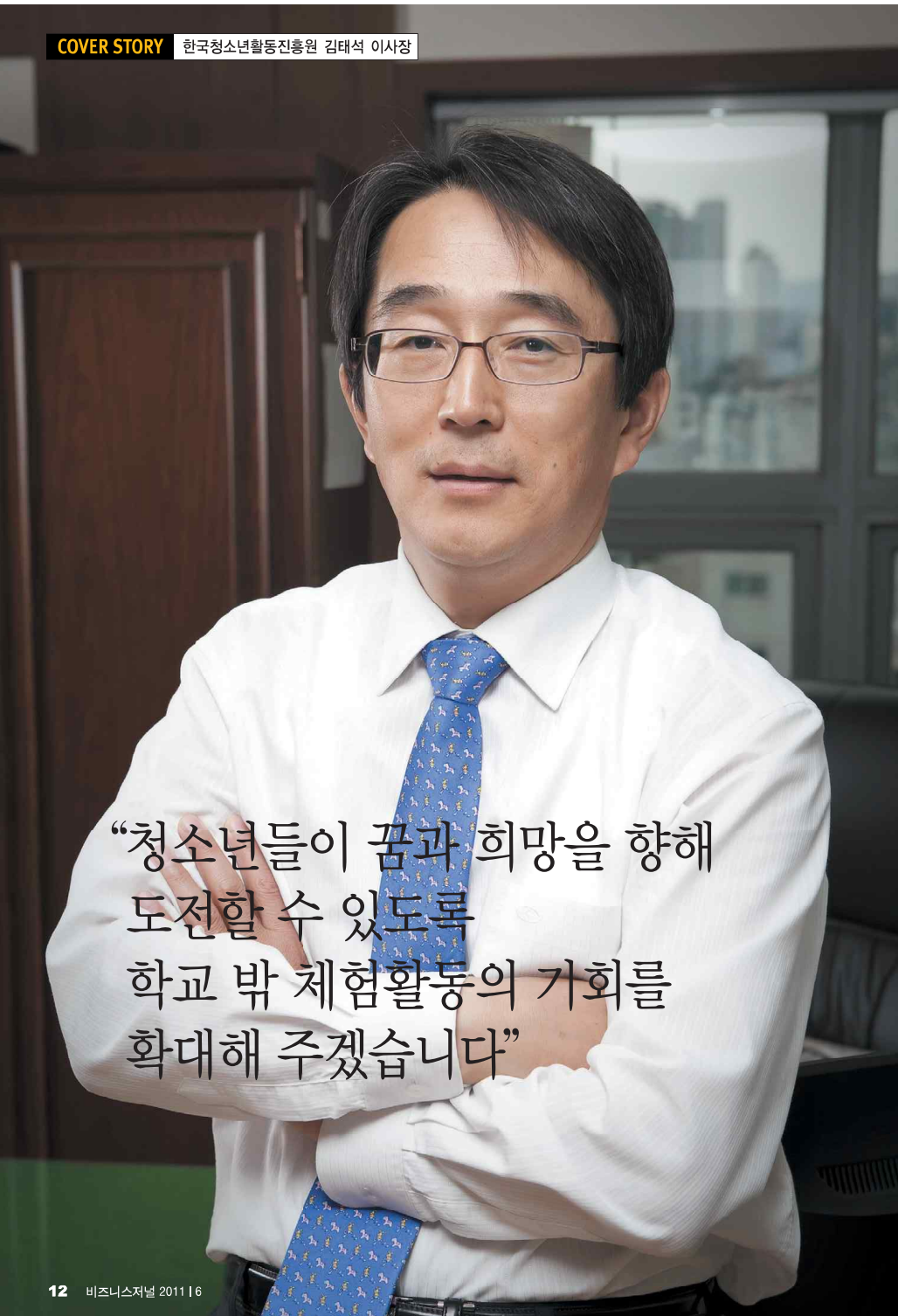
SPECIAL REPORT

신재생에너지 5대 강국으로 간다!

이달의 자치CEO - 전라남도 정순남 경제부지사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와 미래 유망산업 유치로
동북아시아 전라남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

파워인터뷰 - 지오크로스 박태성 사장
세련된 디자인과 고화질의 제품으로
글로벌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 장악할 것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주겠습니다”

‘청 소년 행복자수 OECD 국가 중 최하위, 자살률은 최상위’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의 ‘부끄럽고 슬픈’ 현주소이다. 대학입시를 향한 과도한 학습 부담과 부족한 수면시간, 온·오프라인 유희환경 등의 그늘이 우리 청소년들을 괴롭히고 있다. 청소년들의 그늘을 없애주고 미래 주역으로서의 청소년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국가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해 8월 설립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그곳이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김태석(53) 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박우건 발행인이 만났다.

대담 / 박우건 본지 발행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열악한 성장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을 키우고 역량을 개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기관이다. 진흥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6조에 근거해 지난해 8월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통합해 설립됐다.

1998년에 설립된 한국청소년수련원과 2005년에 설립된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통합된 것이다.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가 등 3개 국립수련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각 지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있다.

진흥원의 초대 수장을 맡은 김태석 이사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조달청과 정부장관실, 여성가족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해왔으며, 여성가족부 시절에는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맡기도 해 적임자라는 평을 받는다.

김이사장은 청소년의 잠재적인 역량 개발과 인격형성을 위해서는 ‘교실 밖’ 활동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동체 의식과 남과의 소통 능력 부족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를 위한 학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자기의 재능과 꿈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경험



김태석 이사장 _ PROFILE

- 경남 남해 출생
- 부산 동아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정책학 석사
- 행정고시(제24회) 합격
- 조달청, 정부장관실 근무
- 여성부 기획관리심의관, 권익증진국장
-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 여성부 기획조정실장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상훈

- 1995 근정포장
- 2003 훈조근정훈장

보다는 경쟁에만 익숙해져 공동체적 생활에 참여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최근 발표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의 더불어 사는 능력은 세계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고, 사회참여 활동 시간도 하루 1분 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청소년의 행복자수가 66점에 그쳐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는 한 예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KAIST 재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을 거론했다.

“청소년기의 실패는 성장 후 자양분이 되는데 어른들이 깨우쳐주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 달리 생각해 보면 별일이 아닐 수 있는 문제인데, 청소년들이 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경험이 없다보니 시련에 부닥쳤을 때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별도의 청소년활동은 없었지만 시골에서 살면서 나무도 하고 꼴도 베고 두 시간이나 걸리는 20리길을 걸어서 통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니 현실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대입 반영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시행

진흥원은 청소년들의 잠재 역량 강화와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 국립청소년수련원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운영(학교단체 시범수련활동, 가족·특성화캠프, 소외청소년캠프)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기록을 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자기성장 프로그램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운영 △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류 사업 △ 청소년의 글로벌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 활동 등이 그것이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청소년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에 안심하고 참여하며 그 활동기록을 대학입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련활동인증제는 지도자, 시설, 프로그램내용 등 일정기준을 갖춘 활동프로그램에 대해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활동 확인서만 출력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개편하여 청소년 스스로 활동내용과 소감을 작성하여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이 대학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국가인증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용을 등재하도록 안내하고 각 급 학교에서 체험활동 운영 시 국가가 인증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어떤 것입니까?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전 세계 131개국에서 600만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자기성장프로그램입니다.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활동, 탐험활동 4개의 영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지역사회에 있는 포상제운영기관의 도움을 받아 6개월 이상 꾸준히 활동해 목표를 성취하면 동장, 은장, 금장을 차례로 주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경우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에 놀랄만한 발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봉사활동을 검색, 신청, 확인서 출력, 개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함께 자원봉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청소년자원봉사단 파견 추진,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행사 추진 등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벌이고 있다.

▲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던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 “우리나라 전역에 700여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2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행에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사,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추후에 전국의 수련시설에서 운영토록하고 그 활동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입학 전형 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흥원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해 여러 개의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종합수련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자연체험시설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우주체험시설인 국립고흥우주체험센터 등 3개의 수련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 오는 2013년에는 김제의 농업생명체험시설과 영덕의 해양환경체험시설이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이들 수련시설은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학교단체시범수련활동, 특성화캠프,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 캠프 등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설대관도 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평창 Happy 700 고지에 위치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하늘담터’라는 통나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행사 외에도 일반단체와 개인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삶의 질 향상시키는 ‘방과 후 아카데미’

이밖에도 진흥원은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자격연수 △청소년의 참여역량 제고를 위해 청소년 시각에서 청소년정책을 제안하고 활동하는 청소년특별회의 △방과 후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다.

▲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됐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특히 달라진대거나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 “지난해 청소년활동분야의 양대 기관이 통합해 출범한 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거는 청소년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은 먼저 범청소년계와 활발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계와 함께 청소년활동의 비전을 만들어나가고 청소년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러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나 성장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학업에 시달리고 특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 등 다양한 유해매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매년 ‘건강한 성장’을 주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건강한 인터넷사용문화조성을 위한 청소년약속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실천후기 공모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외에 국제 청소년성취포상제의 참가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한 '자기도전포상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운영을 하여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조직 내 원활한 소통과 직원 역량강화에 힘써

김이사장은 두 기관이 통합해되었기 때문에 조직 강화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한다. 조직내부의 소통, 직원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특히 노사 간의 대화와 소통에도 노력하고자 하며 이야기를 잘 듣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해

결되는 사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공동의 주요문제에 대해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연간 교육시간을 늘리고, 한 달에 하루씩 자기계발을 위해 교대로 '나업데이(나 Up Day)'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업데이'는 경상도 사투리로 '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 날만은 사무실 외에 도서실 등에서 자기역량 개발을 위한 일에 전념하자는 뜻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많으므로 재능기부 형태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일반 기업은 물론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윤리경영은 이제 대세가 됐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진흥원도 얼마 전

클린 윤리경영 선포식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전략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지금 시대에는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무의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윤리적 생활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솔선수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2일에 전인직원이 참여하여 '클린(Clean)·윤리경영' 선포식을 가졌는데, △부정·의혹 없는 업무수행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및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 △상호대응한 업무 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결의했습니다.”

▲ <비즈니스저널>의 독자 대부분이 청소년의 부모이자 형제자매일 것입니다. 독자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 청소년기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하며, 꿈을 키워가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키우는 길에 이론을 습득하는 학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서 살아가야할 세대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시대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서서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체험의 기회 확대해 줘야

▲ 마지막으로 진흥원의 미션과 비전, 경영전략 그리고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역량개발을 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청소년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중추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강화, △ 청소년활동 기반 확충(지도자, 프로그램, 시



설 등), △ 지속성장을 위한 선진 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전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계에서는 그 동안 '청소년활동'의 의미가 너무 협소하게 다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는 8월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청소년활동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논의의 범위를 범청소년계 차원으로 넓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청소년활동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볼까 합니다.”

김이사장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한 것에 대해 인정받고 격려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라고 전제하고 “사회는 청소년이 그러한 체험 속에서 자신의 소중함과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이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보다 청소년이 소중한 자기 꿈을 향해 당당하게 도전해 갈 수 있도록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우수 사례

▲ 1급 발달장애 승준군의 기적, "IQ가 올라갔어요!"

이승준군(20세, 한일장신대학교)은 1급 발달장애인이다. 제3회 국제 성취포상제 포상식에서 동장을 획득해 장관상을 받았으며, 이어 대입 수시모집에서 한일장신대 신학부에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군은 동장활동시 요양원 무의탁노인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군은 자신이 겪고 있는 장애활동의 불편함을 타산자식으로 살아 노인들의 이름을 외어 일일이 불러주고 거부감 없이 살갑게 일일이 직접 교감하자 노력했다. 이러한 봉사활동이 높이 평가받아 2010년 한일 장신대 신학부에 사회봉사 리더십 전형으로 특채되었다. 승준군의 IQ는 49 정도였으나 이번 은장활동을 마치고 200이나 상승하여 69를 넘게 되었다. 승준군의 어머니 김은숙씨는 “승준이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지를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IQ가 올라갈 줄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승준군은 다시 금장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 강한솔양 - 포상제활동 청소년, 마을 주민 움직여

강한솔(22세, 경원대학교)은 봉사활동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실천했다. 신당동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산공원' 등을 깨끗하게 가꾸고, 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벽화를 그렸다. 이런 강양을 지켜본 예수마을교회의 원우주 선생님은 “강한솔양이 마을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봉사활동을 계획하였을 때 반산본의 했지만, 꾸준한 봉사를 통하여 지역 어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는 민·관·군이 힘을 모아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때에 자발적 봉사활동의 위력을 실감한다.” 라고 밝혔다.

신당5동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들에 의해 시작된 지역 환경 개선사업인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9년 서울특별시 438개 동 자치회관 평가에서 최우수 활동으로 선정된 바 있다.

▲ 박일환군 - 뇌종양 이겨내고 새 삶을 열어

박일환(20세, 경안고등학교)은 4년 전 뇌종양 진단을 받고 2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치료 후 복학을 했으나, 체력은 약하고 나이 어린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마음을 잡아 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삶의 지표를 새롭게 세우게 되었다. 4년 전 병원 생활의 기억들과 꿈을 담은 수필집을 만들었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아프기 전에 가장 좋아했던 농구를 대회참가를 목표로 시작하였다. '예수공동체 우리 집'에서 청소년 및 장애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장애인들을 도왔다. 수상소식을 들은 박일환군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가 삶의 지표가 되었으며, 내가 나약해 질 때 나를 붙잡아 줬다. 또한,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을 때 나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활동소감을 밝혔다.